서울 살곶이다리

중랑천이청계천과합류하여한강으로접어들기 직전 사근동과 성수동을 잇고 있는 성동교바로위쪽에조그마한돌다리가눈에띈다. 한양대학교바로옆에놓여진이다리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다리 가운데 가장 긴 돌다리로서1967년 12월 15일에사적제160호로지정되었으며, 국유이다.

조선시대 돌다리 중 가장 길어

살곶이다리는 옛날 수표교, 금천교 등과 더불어서울에서손꼽히는3개교량중하나였다. 이돌다리는네모의돌기둥으로된교각 위에 장대석을 건너지른 뒤 다시 동틀돌을 놓아 청판돌을 깔아 만든 것이다. 특히, 다리형태가종횡으로곡면을이루어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각부의 석재가 장대하고 질박하여호쾌한느낌을준다. 지금현재는착공당시의다리전체모습이아니라반이상이 손실되어 있던 것을 1973년 서울시에서 복원한 것이다. 이 다리의 공식적인 이름은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에 의해 '제반교(濟磐橋)'라 지어졌다. 마치 집과 같이 편안하고 평평했기 때문에 행인이 평지를 걷는 것과같았으므로왕이제반교라명명하였던것이다.

화살이 꽂힌 벌판 살곶이벌

하지만 조선 시대에 이 다리를 중심으로 그 일대를 살곶이벌로 불러 일명 '살곶이다리'라고도하며한자로는 '전곶교(箭串橋)'라 표기하였다. 서울 뚝섬은 '살곶이벌'으로도 불린다. 화살이꽂힌 벌판이란 뜻이다. 화살 전자에교외라는교자를합쳐전교(箭郊)라고 도한다. 또는동교, 전관평으로불렀다. 동교는도성의 동쪽에 있는 들을의미함이요, 전관평은전관, 즉살곶의벌을의미한다.

살곶이벌이란이름에도고사가깃들어있다. 조선 초기 태조 7년(1398). 태조이성계가 계비 소생인 방석을 세자로 삼고 정도전이세자를두둔하자, 이에불만을품은방원이왕자의난을일으켜계비소생의두아우인 방번(芳蕃)과방석(芳碩), 그리고이를 두둔하는 공신들을 살해한 뒤 집권하였다. 이에 분노한 태조는 함흥 별궁으로 들어가 두문불출하였다. 태종이 아버지의 분노를 가라앉히고자 사신 무학(無學), 박순(朴淳), 성석린(成石璘) 등을보내면보내는족족감금하거나 살해하였다. 이에 함흥으로 가서 돌아오지않는것을두고 '함흥차사'란말까지 생겨났다. 유일하게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 함흥차사가 바로 박순이었다. 그는 새끼 말과어미말을별궁앞에몰고가서어미찾는 망아지의애처로운울음을아버지를그리는 아들, 곧태조를그리는태종의심정으로비유해 성난 태조의 마음을 눅이고 서울로 모셔오게된다. 태조가돌아온다는전갈을받은 태종은 그의 공신이요 가장 신임하는 측신인하륜(河崙)으로하여금이뚝섬에큰차일을치고손수나가태조를맞는성의를보일채비를하였다. 영리한태종은뭣인가예

감하고 차일 받치는 기둥을 유별나게 굵고 큰것으로세우게했다. 돌아오던태조가이 차일에서서성대는태종을보자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별안간 활시위를 당겨 태종을 향해 쏘았다. 태종은 예상했던 바라 재빨리차일기둥을안고몸을피하였고, 태조가쏜화살은그기둥에꽂히게되었다. 이에 태조는 웃으면서‘ 천명이로다’라고 말했다고한다. 이고사가연유가되어화살이꽂힌 곳이란 뜻으로 살곶이벌 또는 전교란 지명이붙은것이다.

성종조의 대역사… 길이가 300보에 달해

살곶이다리가 착공된 것은 세종 2년(1420) 5월이었다. 태종은세종에게 양위한 후역술가의 말을따라이궁(離宮)에서의 생활을희망하였다. 그러나, 개성의이궁은한성에서거리도멀고임진강을건너는번거로움이있는관계로도성에서가까운동교, 즉 현재 광진구 자양동의대산(臺山)에세종 즉위년 10월부터 새로운 이궁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궁의 축조에는 상당한 시일이소요됨으로인하여태종은우선세종 원년 2월에 궁터 옆 높은 곳에 낙천정(樂天亭)이란정자를짓고자주나가있었다. 태종의 형인 정종도 광나루 옆 산허리에 광진원(廣津院)이란 전각을 짓고 머물러 있어당시 의왕인세종도자연히이궁행차가잦을수 밖에없었다.

「세종실록」에는 “ 상왕과 노상왕(정종)이 동교(東郊)에서 매를 풀어사냥하는 것을 구경했는데왕도함께갔었다. 마침내대산신궁(新宮)에서 주연을 베풀고 어두워져 환궁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세종 2년정월까지의1년동안에만상왕이이궁에 행차할때왕이함께갔거나상왕이미리이궁에가있는데왕이이른아침에이궁에행차했다가 저녁에 돌아온 기록이 30여 회에 이른다. 이처럼노상왕과상왕, 왕의이궁행차가잦아그때마다수행한중신들이살곶이들의 중랑천을 건너는 일이 여간한 고역이 아니었을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불편의해소를위해다리를축조하게 되었고, 홍수에도 견딜 수 있으려면 목교가아닌석교라야만했다.

그리하여 세종 2년 5월 6일에 영의정 유정현(柳廷顯)과 공조판서 박자청(朴子靑)으로 하여금 다리 축조 공사를 직접 관리 · 감독하도록 하여 교량 공사가 착공되었다. 그러나, 단시일내에끝낼수있는일이아니었으며, 당시의공사시점이삼복더위와장마철과 겹쳐 5월 25일 기초 공사만 끝내고 공사를 중지하였다. 이후 성종 14년에 이르러 스님들의노력으로1만개의돌을날라 300여보에달하는긴다리를놓는데성공하였다. 다리길이는「용재총화」에는300여보로 나타나있으나「경성부사(京城府史)」에는살곶이다리를 실측한 결과 다리의 폭이 20척(6m), 길이가 258척(78m)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대원군이 집정했던 고종 초년에 이 다리 폭은 겨우 3척 남짓으로 줄어들었다. 대원군이경복궁을짓고또서양함대가한강을거슬러오지못하게강바닥에다가 석성을쌓는작업을병행하면서전국의석재를 징발했는데, 그때 이 다리의 1만 석이나 되는석재가징발되었기에초라한다리가되고말았던것이다.

서울살곶이다리전경.

교통의 요충이자 국왕의 배릉의 길

이 다리는 당시 교통로의 요충지로서 서울의 동남방 세 갈래로 통하는 길목 역할을 하였다. 첫째는광장동, 즉광나루의광장교로서 강원도 강릉 등으로 통하는 길이었다. 둘째는 살곶이다리에서 동남쪽, 즉 현재의 신천동과 잠실동이 있는 하중도(河中島)를 건너서 광주군의 송파로 가는 길이다. 지금은없어졌지만삼전도의나루터를지나게되는것이다. 이길은태종과태종의왕비원경왕후의능인헌릉(獻陵)이있는 광주군대왕면내곡리와그곳에있는제23대순조와순원왕후 능인 인릉으로 통하는 길이다. 그리고셋째는거의정남으로성수동의한강변에 이르는길이다. 이곳에서나룻배를타고강남구삼성동에 있는성종의선릉(宣陵)과봉은사로 통하기 때문에 국왕의 배릉(拜陵)의 길이요, 또한 이궁 왕래로서 살곶이다리는 더욱필요하였다.

이렇듯 이 전곶평은 지역이 넓고 평탄하여 푸른 풀이 일망무제(一望無際)한 가운데 목장(牧場)이 있고 또 녹양(綠楊)과 채전(菜田)등이곁들여최근세까지도봄철이면심춘객(尋春客)의발길을멈추게하였으며, 또하변과강변을따라서는물새들이한가롭게날아드는 풍경도 그때그때 볼만하다.

손광섭
광진건설대표 · 청주건설박물관장